

말씀 듣고 울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느헤미야 8:1-12



손달익 위임목사

한 젊은 성직자의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와 세상의 거대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잘못된 교리, 도덕적 부패,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등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고,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유럽의 침체가 길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회 전반의 변화의 필요성이 팽배했던 시기에 나타난 루터의 저항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개혁운동의 결과로 오늘의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새로운 교파의 출범을 목표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정당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파문하고, 처벌하고, 무력으로 탄압하자 개혁자들이 불가피하게 새롭고 복음적이며 개혁적인 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Soli Deo Gloria,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Solus Christus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성경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수축 공사를 마친 후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하게 했는데 모인 사람 모두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했고,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신앙공동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 그들은 왜 모였는가?

각기 거주하던 성읍에서 일상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1절) 이 모임의 목적은 백성들의 신앙갱신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성벽이 수축되고 건물이 완성된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우 성벽 수축 작업을 마쳐 걸 모습은 가다듬었으나 내부적인 재건은 요원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였지만 주민은 적었고 가옥도 건축하지 못한 채 그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느7:4) 먹을 것이 없으니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사야했고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쳐야 했고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자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신앙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수축되었다 하여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살아나고 정신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위대한 세기를 만들려면 그들에게 영적 부흥의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선한 역사를 이룩하는 일이 이론이나 희망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수문 앞 광장의 말씀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합니다.

2. 말씀 듣고 기뻐하다

이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였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하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발견하고 감동되어 감사하여 울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들은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고 울지 말자고 했고 그들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기쁘게 만든 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것보다 못한 장막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수고해서 건축한 성벽이 그들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슬로건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행을 자처했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을 보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달으면서 그에게 확신과 담대함이 차올랐습니다. 죄를 씻는 것도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Ecclesia reformatata, semper reformatata est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3. 말씀대로 개혁하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신앙은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은혜는 말씀대로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 루터와 쌍벽을 이루는 장 칼뱅은 프랑스 태생으로 훗날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성공시켜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 Total Depravity(전적 타락), 2)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3) Limited Salvation(제한 속죄), 4)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5) Perseverance of Saints(성도의 견인)은 칼뱅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나 칼뱅의 가르침이 이런 구원교리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의 공공적 책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교훈하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개혁의 특징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과 교회 내부의 변화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책까지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칼뱅은 죽기 전 '어떤 화려한 장례식도 하지 말고 묘지에 비석도 세우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인간이 영광 받고 칭송 받는 것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고백을 실천하는 것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서울교회는 그동안 올바른 신앙수호를 위해, 교회가 진리의 성소가 되고 교회 안에 정의와 진실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Ecclesia reformatata, semper reformatata est'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2024 사랑 나눔 장터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김승록 장로
(2024 사랑나눔장터
위원장)

2024년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인 사랑의 나눔 장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바자는 무더운 날씨와 이른 추석으로 인해 다른 해와 달리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추석 전에 하는 미리 바자와 지난 18일(금), 19일(토) 양일간 본 바자를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3-4개월 동안 수고해 준 바자 섬김위원들과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 교구의 간사들과 섬김위원들, 그리고 스테반회, 권사회, 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바자가 더욱 풍성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바자는 매년 진행해 온 바자와 다르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사랑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바자에 참여할 수 있

는 자리를 만들었고, 플리마켓인 벼룩시장으로 진행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서울교회의 전통인 바자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처음 주최하는 제1회 한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의 목표에 부합한 바자로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일 토요일에는 한티문화축제 공연 참여자만 공식적으로 139명이 교회 8층 식당에서 식사하였습니다. 또 한티공원에 설치된 서울교회 홍보부스로 방문한 학생들도 100명 이상이며, 제공한 쿠폰을 가지고 교회로 방문하여 컵떡볶이를 먹은 학생은 50명 가량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의 귀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과 부스에서 풍선아트로 학생들을 맞이한 교육부서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바자에는 농촌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스와 탈북민을 돕는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바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업체 입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회 1층과 앞마당에는 이불 등 기증물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였고, 8층에서

는 교구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다양한 먹거리 등으로 바자에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드렸습니다.

바자 첫날 비가 왔는데,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미리 비닐과 천막을 설치해 주신 시설담당하신 분들, 둘째 날 한티문화축제에 오신 많은 분들의 주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차 담당하신 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바자 기간 동안에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보낸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수고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운 목표를 초과하여 훨씬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바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자 기간 동안 본부의 운영과 서로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시고 이번 바자를 통해 확인한 서울교회의 모습을 통해 더욱 부흥 발전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성경 한 절 한 절의 깊은 뜻을 찾아서



이Geom-손 안수집사
(5교구)

때는 바야흐로 2024년 1월 8일(월) 저녁, 까톡! 까톡! 모르는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암송반 카톡방이었습니다. 울것이 왔구나..... 저에게 주어진 할당분은 잠언 21장 그래도 뭐 11월이니 어떻게 되겠지 싶어 대답없이 눈팅만 하였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4년 더위와 업무에 있어 버릴 때쯤이면 간간히 울리는 카톡을 애써 외면하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르니... 가을로 접어들면서 중간 점검을 하시겠다는 카톡 메시지에 더 이상 늦추면 안될 것 같아 외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때 한두 절 외워본 게 다인데... 역



시나 머릿속에 입력은 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한 절 한 절 주옥같은 말씀이었지만 스토리 없이 뚝뚝 끊어지는 말씀에 한 절을 외워도 다음 절로 연결이 되지않으니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차안에서 캡처해 놓은 핸드폰 사진으로 보고 또 보고.. 쉬는 날 식탁에 앉아 써보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한 절 한 절 외워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년 1독은 해야지 하는 맘으로 의무적으로 읽어 넘기던 말씀을 막상 외우려고

하니 한 글자 한 글자 묘하게 달리 적어놓으신 것이 헛갈리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여인?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난하게 되는 것과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등등 아마 다 외울 때쯤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늦깎이 암송을 경험하며 한결음 하나님께 다가선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암송 당일까지 완벽한 암송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선 제 맘만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9)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



전광환 권사
(2교구, uTour50+ 대표)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시행하던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면서 95개 조항을 발표하여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먼저, 체코의 후스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프랑스의 칼뱅 역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후스,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칼뱅과 관련이 있는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도시에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신앙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현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힘썼던 개혁자들의 발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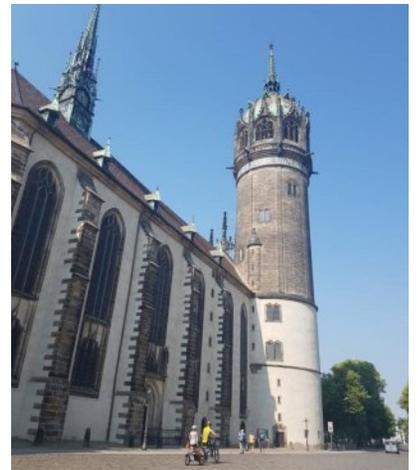
후스의 도시 체코 프라하를 시작으로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일 비텐베르크, 루터가 황제 앞에 소환되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펼친 보름스, 루터가 한동안 숨어 지내며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스위스 종

교개혁의 중심인물 츠빙글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취리히와 종교개혁을 학문적으로 완성한 칼뱅의 도시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서 나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기억하고 그 신앙 지키고 따라 걸으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되새겨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프라하 안 후스 광장



비텐베르크성 교회



취리히 바서키르헤



제네바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2024 디지털 목회와 선교 컨퍼런스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024 디지털 목회와 선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인간기술공생네트워크(HTSN)가 주최하고,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과 나눔과 기술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첨단 기술과학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 평신도 기술 과학자, 기술 경영인, 디지털 미디어 관련 종사자 등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HTSN 간사 장해림(010-8388-2601)
신청 : 구글신청서 QR



27장 :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유익 (1)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신앙고백문이고, 약 100년경 로마 교회의 세례문답에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신앙에 기초하고 있으며, 12개의 항목에 걸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균형잡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사도신경으로 매주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

스도교 전통 안에서 2000년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온 복음의 내용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면, 또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순서의 일부로만 생각했다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

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유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의 요약이기에 그 유익을 아는 이단들은 그 유익이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문제삼아서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59문 :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59문의 답을 살펴보기 이전에 문제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몇 가지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동의가 되어야 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의 12 항목’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12개 항목을 ‘모두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유익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나중 또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린다는 것이 세 번째 전제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확인함으로써,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제를 언급한 것은 제59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59문답은 ‘이 모든 것’ 즉 복음을 믿는 것이 ‘지금’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만을 보면 너무나

뻘하고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정작 이 너무나 뻘하고 당연한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진 신앙의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59문답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죽어서 천국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59문답의 키워드는 ‘지금’입니다. “구원=죽어서 천국가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유익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과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면서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왜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의롭게 되었다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의 삶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삶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확실한 믿음,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다른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60문 :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심’에 귀를 기울이느냐 ‘복음’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판단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성경’이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모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세트 메뉴, 패키지, 종합선물세트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행위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토대 또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가 전제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고 지적인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행위를 저급하게 취급하는 것은 은혜라는 전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세례식 거행

교회는 지난 10월 20일 찬양예배 시 2024년 세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교자
이예은 정우성 현지은 총 3명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11.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6	도르가, 루디아, 뵈뵈
11.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11.13	마리아
11.17	자원자	모세	11.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1.24	자원자	이사	11.27	리브가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섬김과 사랑의 영성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항상 새롭게 개혁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서울교회 4대 위임목사님의 청빙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전쟁과 분열, 고통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0월28일	월	요 3:1-4:45
10월29일	화	요 4:46-6:15
10월30일	수	요 6:16-7:31
10월31일	목	요 7:32-8:59
11월1일	금	요 9-10
11월2일	토	요 11-12
11월3일	주일	요 13:1-15:17

매체인 성경통독			
왕하9	딤후6	호1	시119:73-96
왕하10	딤후1	호2	시119:97-120
왕하11,12	딤후2	호3,4	시119:121-144
왕하13	딤후3	호5,6	시119:145-176
왕하14	딤후4	호7	시120-122
왕하15	딤후1	호8	시123-125
왕하16	딤후2	호9	시126-128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 협동목사
양정호
-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흥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